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신문방송학과

권 미 애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혜 경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권 미 애

권미애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 원 문학박사 이 상 기 (인)

위 원 정치학박사 한 혜 경 (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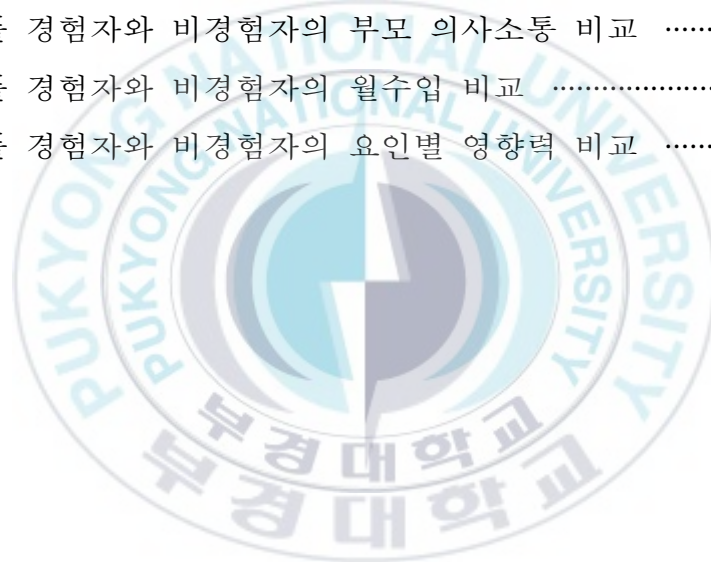
Abstract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논의	8
1. 악플	8
1) 악플에 대한 정의	8
2) 악플 경험자에 대한 정의	10
3) 악플과 사이버공간 및 문화와의 관계	10
2.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특성 비교의 영향 요인들	14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4
2) 심리적 요인	15
(1) 자아존중감	16
(2) 공격성	20
3) 가정 환경적 요인	23
(1) 부모의 양육태도	23
(2)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25
(3) 월소득	27

Ⅲ. 연구방법	2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29
2. 변인측정	30
1) 악플	30
2) 인구사회학적 요인	31
3) 심리적 요인	32
4) 가정 환경적 요인	33
3. 분석방법	35
Ⅳ. 연구결과 및 해석	37
1. 일반적 특성	37
2. 인터넷 이용 특성	39
3.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	42
4. 악플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비교	50
Ⅴ. 결 론	52
1. 결과요약 및 논의	52
2. 연구한계와 의의	57
참고문헌	59
부 록	68

표 목 차

<표 1> 일반적 특성	38
<표 2> 인터넷 이용 특성	40
<표 3>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44
<표 4>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자아존중감 비교	45
<표 5>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공격성 비교	46
<표 6>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부모 양육태도 비교	47
<표 7>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부모 의사소통 비교	48
<표 8>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월수입 비교	49
<표 9>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요인별 영향력 비교	51



Comparative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yber-attackers and
non-attackers: Focus On the Demographic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Kwon, Mee-A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cyber-attackers and non-attackers. Demographical factor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have been studied in order to defin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Cyber-attackers, internet users who would likely attack unidentified others with malicious messages, in general are found to be low self-esteemed, yet full of themselves and aggressive in their behavior. This tendency, however, has lacked the scientific study and theories to be considered as a branch of science. Therefore, this study will explore a number of characteristics found in cyber-attackers and non-attackers.

This survey was conducted among 518 students in primary, secondary and high-level education in Busan. Results were collected from the questions regarding demographical, psychological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Results show that a majority of cyber-attackers are identified as male. In terms of age, however, cyber-attackers in different age group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y presented the larges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factors and self-esteem.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home environmental category. Aggressiveness was pick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self-esteem when distinguishing cyber-attackers and non-attackers. In sum, internet users get more aggressive with their online messages as they show higher level of aggressiveness and lower self-esteem.

Key words: cyber-attackers, non-attackers, aggressiveness, self-esteem, open communication

I. 서 론

1. 문제제기

인터넷의 등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 건 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국 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진 인터넷 신문에서 최첨단 매체로서의 방송까지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정보화시대에서 인터넷의 발전은 댓글 문화를 꽃 피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인 일명 악플(악성 댓글, 惡+reply)이 한국사회에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방송 공익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테러보다 더 잔인한 테러』라는 카피를 담은 악플 방지 광고는 물론 『인터넷의 흥기 ‘키보드 워리어’(조선일보, 2007)』, 『악플러에 속끓는 병·의원들, 소송도 "쉽지 않아"(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더라도 악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악플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상업광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내용, 비윤리적인 내용의 댓글로 강양구(2004)는 이와 같은 폭력적인 댓글이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 또한 자아 개념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악의적 커뮤니케이션은 육체적 공격 결과보다 더욱 해롭고 장기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nfante & Wigley, 1986). 실제로 악플을 통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1월 가수 유니, 6월 스타킹 출연 여고생이 무차별한 인터넷 악플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임수경, 강원래, 김태희, 고소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인신공격적 악플로 인해 피해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

학계에서는 인터넷 문화현상의 하나인 댓글에 대한 다양한 연구(정일권·김영석, 2006; 김병철, 2004; 강양구, 2004; 김은미·선유화, 2006; 박수진, 2006)가 진행되어왔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IT사회의 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악플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악플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심리학자와 신경정신의학자들은 악플을 다는 원인을 악플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열등감, 자기과시, 공격성 등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유희정, 2007; 동아일보, 2007; 동아일보, 2005). 또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성격은 개인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를 이용하려는 욕구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차이가 이용 행위, 즉 악플을 다는 행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김병선, 2004).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악플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악플에 대한 기존 매체의 분석은 악

플 경험자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악플과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인간의 경험은 미디어 매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인간의 경험 과정에 개입하면서 인간의 경험을 규정한다(김성벽, 2002). Giddens(1997)는 매개적 경험의 증가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전도’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많은 사건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외부의 상관없는 일로 경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일상생활에 파고든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은 개인의 의식 및 행동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는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교태(2007)는 ‘온라인 플레밍(flamming)¹⁾ 발생 요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최근 악플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특질이 플레밍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10대, 공격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플레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공격적 메시지를 전달 혹은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불일치를 보인다고 했다(Kramarae & Tayler, 1992).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Crick & Grotpeter, 1995)고 강조해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

1) 플레밍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모든 악의적인 공격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하는 반면, 악플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을 지칭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플레밍에 해당된다.

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악플과 같은 유혹에 더 빠져 들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2004)은 댓글에의 참여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집단은 젊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 그리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즉 실질적으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용자의 수입 정도가 인터넷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미은, 2001)는 분석과 웹사이트별 방문율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한혜경, 2001)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악플 경험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성별, 연령, 월수입 등이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은 경제적 빈곤, 사회구조적 원인, 공격적 모델을 제시해 주는 TV, 영화, 만화,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안지영, 1992).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정과 관련한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의 원활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학령기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질, 적응 능력 및 교우관계와 정적으로 관련(서명성, 1998)되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해진다는 보고(민하영, 1991)는 이들 사실을 뒷받침한다.

열등감과 같은 요소를 잘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의 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특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Wylie, 1979).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해 악플을 즐겨다는 악플러는 혐오스러운 글을 많이 남겨 자신을 타인에게 각인시킨다.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은 사람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적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한다(이윤미·양혜영·이민아, 2006)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자기 제시를 하는 악플 경험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월수입 등 가정 환경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악플 경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악플 방지를 위한 대안에 작은 보탬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악플을 정의하고 악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와 인터넷 이용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 성적 등을 비교했고,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월소득 등을 비교해 본다. 또한 이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 1-1. 성별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 1-2. 연령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 1-3. 학업성적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심리적 요인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 2-1: 자아존중감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2-2: 공격성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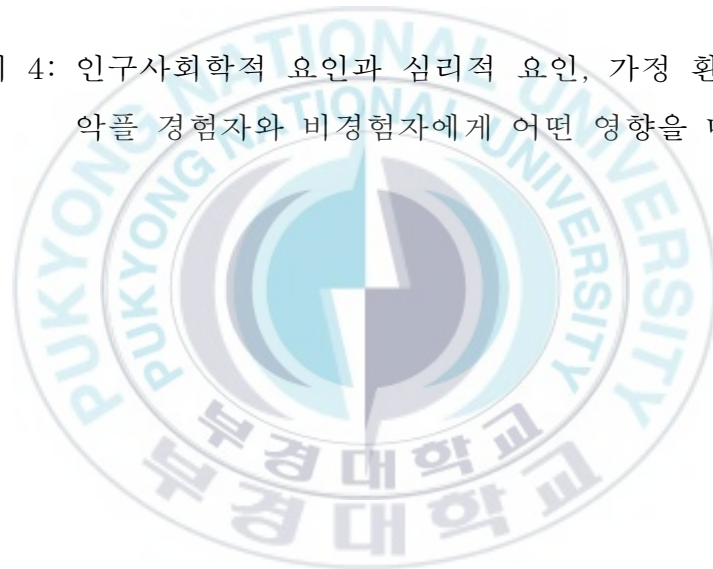
연구문제 3: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3-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3-2.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3-3. 월소득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논의

1. 악플

1) 악플에 대한 정의

악플(악성 댓글)은 국립국어원이 2004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한 단어로 악(惡)자에 답장이라는 뜻의 리플라이(reply)라는 영어를 섞어 만든 신조어이다. 네이버 사전에는 악플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로 정의하고 있다.

방상훈(2006)은 많은 댓글들이 유머, 풍자를 동반한 우스개소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이 지나쳐, 비속어의 난립, 서로간의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을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2005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연예인 X파일 사건, 개똥녀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상에서 악플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악플이 많이 달린 사례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 중 탈레반에 피랍됐다 풀려난 김정자, 김지나 씨의 입국 기사가 실려 있는 한 포털사이트의 뉴스코너에는 6,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짜증나게 살아 돌아오다니’ ‘에라이 ○○○들아 너네 우리나라에서 추방이야!’ 등 얼굴을 맞대고는 도저히 하지 못할 욕설과 원색적인 표현

이 많았다. 또한 ‘디워, 과연 한국영화의 희망인가.’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만 해도 방송 중 실시간 댓글만 무려 7,000여 개가 달렸고, 방송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관련 댓글 2만여 개가 달렸으며, 참석한 패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악플 공세가 이어졌다. 한편 고소영, 김태희, 강원래 씨 등의 연애인을 상대로 악플을 달아온 악플러(keyboard worrier)를 이들 연애인들이 고소하는 등 악플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과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나 연예인 관련 기사 등에 악플이 많이 달린다.

악플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며 인신공격성 발언, 비속어 사용, 과격한 내용이나 선정적, 비논리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을 매도하거나 저주성 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댓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댓글을 악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2007년 8월 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악플 판단의 기준으로는 ‘누가 봐도 명백한 비방, 비하’가 46.2%(1,218명)로 가장 많았으며, ‘쓴 사람의 의도적 악의(17.4%, 459명)’ 보다는 ‘듣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악플이라고 판단한다’는 답이 30.5%(804명)로 더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욕설이 있을 경우 악플로 판단하는 경우는 5.9%(155명)에 그쳤다. 또한 악플은 자기 주장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악플에 대응하기 위해, 재미나 군중 심리로 악플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악플은 SK커뮤니케이션(2007)의 조사에서처럼 비방, 비하한 댓글과 함께 쓴 사람의 의도적 악의 보다는 듣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도 악플로 정의한다.

2) 악플 경험자에 대한 정의

악플을 극단적으로 많이 다는 사람인 악플러(keyboard worrier)는 연예인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악담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까지도 파악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정보를 악의적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악플러 즉 키보드 워리어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용감하지만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고 소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문화 지체 현상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텍스트 매체를 이용해 공격적 언사로 그 분노를 대신 표현한다. 같은 말로 키보드 전사라고도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악플 경험자는 악플러처럼 극단적인 내용의 악플을 지속적으로 다는 강한 중독적인 성향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한 번이라도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킨다.

3) 악플과 사이버 공간 및 문화와의 관계

한국의 댓글 문화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된 반면,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

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악플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게시판 가득 메우고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댓글의 일종인 악플은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으로 인터넷이 지니는 상호작용성과 익명성(anonymity), 비대면성, 탈금제 등의 기술적 매체 특성과 사이버 문화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우선 컴퓨터와 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상적인 공간의 특징 중 하나로 익명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시판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만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길 수 있고, 아이디의 사용에 있어서도 익명의 사용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anonymity)은 상대방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익명성은 개인의 실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차별이나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악플을 양산하는 것과 같은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익명성은 개인들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하는 경향을 낳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욕구나 감정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거친 말, 절제되지 않은 비판, 남을 비방하는 말, 분노, 혐오, 두려움이 표현되기도 하고, 현실공간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순형(2002)도 사이버 공간이 탈공간적이고 초고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활동에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위축된 자아를 해방시키고 자아를 확장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반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아 확장의 한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악플을 다는 것과 같은 개

인의 다중적 자아를 기능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순형(2002)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이버공간의 초고속성은 대인관계를 확대하며, 동호회와 같은 집단 구성원의 동시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접속을 하게 되어 관계의 양은 늘어나지만 피상적인 만남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한다. 사이버공간의 탈공간성과 확장성, 동질성은 존재의 확대감을 주며, 유사한 관심사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공간 부적응자나 내성적 성격으로 폐쇄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가상공간이 일종의 탈출구 기능을 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플과 같은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실명제 이후 악플이 상당 수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블로그나 뉴스 게시판 등에 악플이 만연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은 일반적인 사회적 활동과는 달리 각 개인이 서로를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임수경씨 아들 댓글 사건에 기소된 이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금융회사 임원, 대기업 회사원 등이 포함되었다(연합뉴스, 2006). 이들 중장년층은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기소된 것이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외에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접근의 용이성, 탈통제성, 국제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악플을 다는 행동에 대한 범죄 의식의 약화 내지는 결여가 나타난다.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은 개방

적이고 공개적인 사이버공간의 또한 다른 문제는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오염’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과 탈금제의 경향으로 인해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음란물, 언어 폭력, 명예훼손, 반사회적이고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사이버공간의 또 다른 특성인 극단성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고와 행위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한 때 사이버공간에 풍미했던 ‘엽기’ 현상도 이러한 극단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잠재된 극단적 사고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는 더 쉽게 발현될 수 있으며, 그런 사고나 행위는 그 자체의 새로움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더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고 악플도 이와 같은 경향을 지닌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상에서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한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사이버 공간이 실제 생활에서보다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탈 억제가 더욱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상태를 더욱 강하게 과장하고 표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출구로서 사용(장미, 2006)하기 때문에 악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보경(2006)은 사이버 공간의 인간관계는 자칫 피상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으며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댓글을 달지 않거나 글을 삭제해 버리면 그만이고 또한 한 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고, 깊이 있는 대화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 지적한다. 사이버 상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악플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2.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특성 비교의 영향 요인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6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 80.8%, 여성 68.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또한 연령에 있어서도 6~19세 98.5%, 20대 98.9%, 30대 94.6%로 30대 이하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40대는 74.9%로 30대 이하 세대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혜경(2003)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계층은 젊은 세대에, 그리고 고학력층에 편향되어 있으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한편 댓글을 달 때 타인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김병철(2004)은 댓글 참여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집단은 젊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에, 그리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2007년 8월 13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참여자 2,636명 중 420명(16%)이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고, 여성보다 남성이 악플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녀 간에도 악플 경험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별에서 남성과 연령에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악플을 경험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재수(2000)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 남학생의 85%, 여학생의 15%가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고, 중독아동의 거의 대부분이 과제수행이나 학업에 장애를 받는다고 한다. 김성천(2002)은 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자와 비중독자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니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중독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전인숙(2006)은 가족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고소득일수록,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으로 갈수록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 연령, 경제수준인 월소득 등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은 유의미 하며 이들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조사에 포함시킨다.

2) 심리적 요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심리적 상태, 즉 개인의 성격이 악플을

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인간 행동을 논의할 때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심리적 요인은 인터넷 사용 수준 연구나 의사소통패턴, 아버지의 양육행동 등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공경환, 1998; 배숙진, 1998; 이희숙, 1980)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이 웹 이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웹 이용 행위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에 널리 적용되는 연구 경향이기도 하다(Rubin & Bantz, 1987). 일부 연구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동기를 발생시키는 사회적·심리적 선행 요소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Conway & Rubin, 1991; Rubin & Rubin 1992). 이 중 개인이 지닌 성격은 개인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를 이용하려는 욕구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차이가 이용 행위의 차이로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악플을 다는 행위인 악플 경험에 있어서도 심리적 요인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앞서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악플 경험과 관련된 요인으로 예측된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정서적, 행동적, 학문적 적응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Dubois, Bill, Sherman,

Roberts, 1998).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인 믿음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이며 자기 수용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게 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현명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자기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박진희·장남기, 1997).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기 결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내적조절이 잘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악플 경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경주(1998)는 아동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중요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사회인식의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기평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며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플레밍과 같은 악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신의 자아개념이 공격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아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Infante & Wigley, 1986). 이와 같이 현실에서의 소극성은 가상공간에서는 더욱 공격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악플을 다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발현된다. 이런 아동들은 사회생활에서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절망적이고, 억압되어 소심하며, 자신의 판단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또한 집단 토론에서도 단지 듣고만 있을 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에 의해 쉽사리 기가 죽고, 감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중심적이다. 최은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폭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방임 등은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다.

한규석(1999)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신체적인 정보가 배제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에게는 유혹적인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이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들에게는 중독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의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존중감 회복은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게 되고, 실생활로 돌아오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자아존중감은 더 낮아진다(이봉건, 1999). 이런 식의 반복이 인터넷 중독자를 만들고 악플 중독자인 악플러를 낳게 한다. 이경님(2004)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이기거나 많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등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다른 게이머들의 칭찬과 심지어 존경까지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맛보지 못했던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보상 경험이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혜란(2002)은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높고 자기표현 능력이 강하여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거절하고 제한하려고 하므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

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처럼 악플을 다는 행위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많은 연구(이석재, 1996; 최창호, 1993; Baumeister 1989)는 자아존중감이 자기 제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주장적 제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고자 자기보호적 제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좋게 평가 받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능력과 사회성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칭찬 받을 만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로 자신의 능력 있음과 경험이 많음 등을 들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자기 제시를 사용한다. 이런 자아존중감의 수준 차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악플 경험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간접적 자기 제시를 한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악플을 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하려는 과시형 자기 제시 또는 긍정적 자기 제시를 할 것이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은 사람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악플을 다는 것과 같은 부정적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격성

공격성이란 폭력, 공격성, 파괴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 등에 의하여 타인, 자기 자신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심한 손해, 상해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인간 본성의 하나로 생각되는 공격성의 경향, 공격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본능적 충동 즉 공격 본능 또는 그 공격 본능이 지니는 힘(energy)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격성은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와 폭력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특성(Loeber & Stouthamer-Loeber, 1998)으로 본능이나 기질 등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Crick & Grotpeter, 1995)에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곽금주(1992)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방어 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라고 공격성

을 넓게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공격성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Lesser(1959) 등 초기의 연구자들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Crick과 Grotpeter(1995)가 중심이 되어 여아에게서도 나타나는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을 도입하여, 여러 공격성의 유형을 통합, 정리하여 공격성을 외현적(overt) 공격성과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유형화 하였다. 신체적인 손상을 입힘으로써 또래에게 해를 입히는 외현적인 공격성과는 대조적으로 관계적인 공격성은 우정 관계 혹은 또래 관계를 통제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고 지적한다. 외현적 공격성이란 개인이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 개념이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고독감, 우울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또한 Patterson (1982)은 부모의 관리와 감독 소홀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공격적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공격적 행동의 횟수나 강도가 클 때, 공격성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공격적인 아동’이라고 지칭한다(김귀연, 2005). 학자들은 공격적 성향이 일찍이 아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미영, 1998). Patterson(1986)은 공격적 행위가 이른 아동기와 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아동들은 나중에 공격적인 사람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또는 언어적인 기술이 미숙한 사람은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신체적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고 한다(Bandur, 1973). 구교태(2007)는 공격 특질이 높을수록 플레밍은 더욱 빈번할 수 있으며 낮을수록 악의적인 공격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 공격 특질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타당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희정(2007)은 악플을 많이 다는 악플러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반복적으로 어떤 경우는 다소 강박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며, 악플을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인의 습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쏟아지는 비난은 악플러에게는 다른 자극을 제공하면서 주의를 끌고자 하는 의도가 성공했음을 의미하고 이들에게 악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공격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의 게시판과 댓글 등이 ‘토론의 공간’이라고 불려왔지만, 실제로는 매우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인 말다툼이 오고가는 ‘언쟁의 공간’이다(윤영철, 1998).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플의 공격성은 인권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타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악플을 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악플이 공격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는 미미한 상태이지만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공격성을 꼽을 수 있다.

3) 가정 환경적 요인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가정과 학교, 사회 및 문화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가정 환경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남연(1981) 은 확고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부모의 태도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의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는 요인으로 가정 환경적 요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1) 부모의 양육태도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문화양식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하고,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문화적 배경, 부모-자녀의 개인적인 요소와 관계가 깊다고 한다. 박아청(1999)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이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람직한 역할상과 양육태도가 보다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육태도 척도를 통해 조사된 양육태도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공격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의 가치관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반드시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자녀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 유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구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Farrington(1989)은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지현(2005)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동은 부적절한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정서 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김유연(2001)은 부모의 허용적 태도와 비일관적 태도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태도이고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태도라고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를 애정적, 개방적,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얻고 있고 무조건적인 지시나 억압이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책임을 배우며 성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능력을 발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희숙(1980)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자녀의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보호적이고 복종적이라고 지각할 때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배숙진(1998)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며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 때 낮아졌다고 한다.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 자신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대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거칠게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악플 경험 여부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환경적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 능력은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적응’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고 타인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다 (Wiemann, 1977).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통의 의미를 창조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

며 청소년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희자·김경원, 2000).

인간의 자아개념 형성의 대부분은 부모나 가족, 또래집단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되며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인식 등은 자아개념의 기초가 될 수 있다(송양호, 1999). Barnes & Olson(1985)은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감정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상호 이해와 만족의 정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반면 통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의사 교환을 회피하고 서로 불신하여 선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이경남, 2003). 대다수 연구들(공경환, 1998; 배숙진, 1998; 이희숙, 1980)에서도 부모가 수용적으로 자녀와 의사소통하고 애정적, 합리적, 자율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왔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해진 다(민하영, 1991)는 연구결과도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상관을 가지며, 대인 관계가 미숙함을 나타내고, 이는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대화 지향이 높은 가족들은 대화의 개방성이 높아,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을 상호작용적 관계로서 항상 열려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Kremar, 1996). 반대의 경우인 비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의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해 닫힌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질 경우 통제적인 가정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질문을 많이 하며, 토론이나 숙고할만한 계기도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Kremar, 1996).

이경님(2004)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가상공간의 게임을 통해서 보다는 현실의 가족관계에서 충분한 심리적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게임중독의 경향이 낮았다고 한다. 또한 사춘기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와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청소년은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통제와 간섭을 할 때 오히려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해 신뢰에 기반을 둔 질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어린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도움을 준다.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어린이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데 방해가 된다(나은영·송종현, 2006).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개방적 의사소통이 악플을 다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의사소통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달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3) 월소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 직종에 종사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박수경, 1992; 손화희, 1989). 조휘숙(2004)은 빈곤아동들은 공격적이고 우울한 정서로 빈약한 사회적응력 등의 부적응을 보인다고 밝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은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빈곤부모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심리적 문제는 양육 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 아동들은 사회 정서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경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낮은 사회 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보더라도 경제 수준을 말하는 월소득이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가정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부산 지역 대학생 180명과 고등학생 180명, 중학생 120명,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총 58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댓글 사용 유무, 악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악플을 다는 빈도와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월수입 등 가정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을 넣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최은영, 2006; 이윤미·양혜영·이민아, 2006; 장미, 2006; 김경호, 2003; 이희자·김경원, 2000; 오경주, 1998; 박진희·장남기, 1997; 박영애, 1995; 최창호, 1993; 손화희, 1989)가 이루어져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대화, 대인관계 등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김귀연, 2005; 김지연, 2005; 박성연, 2002; 고미영, 1998)가 있다.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집단은 젊고 교육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그리고 도시지역에 편중(김병

철, 2004)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따른 차이가 생긴다는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설문을 했다.

조사는 부경대학교 대학생 59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22일 사전 설문을 하였고, 24일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실시했다. 사전 설문 후 설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을 새롭게 보완하여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표집 학교는 국립대학교 2개교와 사립대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 고등학교는 인문계 남학교 1개교, 실업계 남학교 1개교, 인문계 여학교 1개교, 실업계 여학교 1개교, 중학교는 여자중 1개교와 남자중 1개교, 초등학교는 2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교사의 동의 아래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이 62건으로 나머지 518건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2. 변인측정

1) 악플

이 논문에서는 비방, 비하한 댓글과 함께 쓴 사람의 의도적 악의 보다는 듣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도 악플로 정의한다. 어떤 것이 악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인터넷 댓글 중에서 악플이 차지하는 빈도를 “전혀 없다, 가끔 보인다, 반반이다, 악플이 더 많다, 전부 악플이다”의 질문을 통해 5점 척도로 나타냈다. 또 악플 경험에 대해 달아본 경험이 없다=“1”, 일년에 1번 정도 단다=“2”, 2~3달에 1번 정도 단다=“3”, 한달에 1번 정도 단다=“4”, 한달에 2~3번 단다=“5”, 일주일에 1~3번 단다=“6”, 일주일에 4번 이상 단다=“7”로 7점 척도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악플 경험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악플 경험에 대해 달아본 경험이 없다=“1”을 “0”으로, 일년에 1번 정도 단다 등 악플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1”로 재코딩하여 분석했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소인 성별과 연령, 학업성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연령은 학교 연령으로 초등학생=“1”, 중학생=“2”, 고등학생=“3”, 대학생=“4”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했다. 학업성적은 하=“1”, 중하=“2”, 중=“3”, 중상=“4”, 상=“5”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적 분석을 위해 하위와 중하는 “0”으로 중=“1”로 중상과 상위는 “2”로 3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심리적 요인

(1) 자아존중감(self-esteem)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총 문항 수는 10문항으로,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한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1, 2, 4, 6, 7번)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3, 5, 8, 9, 10번)에 대해서는 역으로 합산을 한다. 점수 범위는 10에서 50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의 질문지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론으로 자아개념을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있다.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공격성 척도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Crick와 Grotpeter(1995)의 공격성 정의와 Schwartz, Chang과 Farver(2000)의 공격성 척도를 참고로 개발한 박성연(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박성연의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나는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선생님께 고자질한 적이 있다”는 질문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과 맞지 않고 영향력도 없어 질문에서 빼고 22문항으로 구성해 설문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격성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4) 가정 환경적 요인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일관적 태도를 보이는지, 애정적인지, 허용적인지, 통제적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기존 연구들(김보형, 1999; 박성연, 1990; 박영애, 1995; 오미경, 1997)을 참고로 하여 구성한 김유연(200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연구에 사용된 양육태도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되어 있다. 설문은 “아버지는 나에게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다.”,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많으시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태도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부모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오미경(1997)이 김진희(1989)의 것을 토대로 구성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각각 7문항씩의 14문항을 사용했다. 설문은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의논한다.”, “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3) 월소득

가정의 월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100~200만원 미만=“1”, 200~300만원 미만=“2”, 300~400만원 미만=“3”, 400~500만원 미만=“4”, 500만원 이상=“5”로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조사된 설문은 SPSS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문제 2>인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통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3>인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월수입 등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통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4>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이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다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설정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특성을 살펴 본 후, 이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47.5%(246명), 여학생은 52.5%(272명)로 표집 되었다 (평균 .53, 표준편차 .50).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16.39세(표준편차 3.81)였다.

조사대상자의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7.6%(91명), 중학교가 19.3%(100명), 고등학교가 33.4%(173명), 대학교가 29.7%(154명)로 나타났다. 성적 수준을 살펴보면 중간이 36.9%(191명)로 가장

많았고, 중상위 27.4%(142명), 중하위가 15.8%(82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월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28.0%(14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21.6%(112명), 100~200만원 미만이 17.2%(89명) 순으로 조사됐다.

<표 1> 일반적 특성 (N=518)

특 성	구 분	N	(%)
성 별	남학생	246	(47.5)
	여학생	272	(52.5)
만 연령(세)	평균(표준편차)	16.39	(3.81)
학교 유형	초등학교	91	(17.6)
	중학교	100	(19.3)
	고등학교	173	(33.4)
	대학교	154	(29.7)
학업 성적	하위	36	(6.9)
	중하위	82	(15.8)
	중간	191	(36.9)
	중상위	142	(27.4)
	상위	61	(11.8)
	무응답	6	(1.2)
월소득	100~200만원 미만	89	(17.2)
	200~300만원 미만	145	(28.0)
	300~400만원 미만	112	(21.6)
	400~500만원 미만	60	(11.6)
	500만원 이상	75	(14.5)
	무응답	37	(7.1)

2. 인터넷 이용 특성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에 대해 우선 살펴보았다<표 2>.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보면 1시간~2시간 미만 이 27.0%(140명)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6.3%(136명), 2시간~3시간 미만이 21.0%(109명) 순으로 조사됐다. 무응답자를 뺀 조사자의 인터넷 사용시간 평균은 3.32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1.35).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읽는다는 설문에 가끔 읽는다는 39.2%(203명)가 답했고, 자주 읽는 편이다에 22.0%(114명), 보통이다에 17.2%(89명)가 응답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응답자들이 자주 읽음을 알 수 있다(평균 2.67, 표준편차 1.17). 또한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냐는 설문에 조사대상자 78.8%(408명)가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자를 뺀 평균은 1.79, 표준편차는 .41이었다.

댓글을 주로 다는 매체에 대해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를 고르라는 응답에 354명이 네이버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217명이 다음 사이트를, 208명이 네이버를 135명이 기타(싸이월드 등)를 선택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에 댓글을 많이 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을 주로 다는데 이용하는 장소는 55.4%(287명)가 집(내방)이라고 답했고, 15.1%(78명)가 집(거실)이라고 답해 70.5%가 집에서 댓글을 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자 92명을 뺀 평균은 3.07, 표준편차는 .75이었다.

<표 2> 인터넷 이용 특성

(N=518)

특 성	구 분	N	(%)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사용안함	28	(5.4)
	1시간 미만	136	(26.3)
	1시간~2시간 미만	140	(27.0)
	2시간~3시간 미만	109	(21.0)
	3시간~4시간 미만	55	(10.6)
	4시간 이상	46	(8.9)
	무응답	4	(0.8)
댓글 읽기	읽지 않는다	76	(14.7)
	가끔 읽는다	203	(39.2)
	보통이다	89	(17.2)
	자주 읽는다	114	(22.0)
	매우 자주 읽는다	36	(6.9)
댓글 경험	없다	109	(21.0)
	있다	408	(78.8)
	무응답	1	(0.2)
댓글 장소	학교	23	(4.4)
	게임방	26	(5.0)
	집(내방)	287	(55.4)
	집(거실)	78	(15.1)
	기타	12	(2.3)
	무응답	92	(17.8)
인터넷 댓글 중 악플 정도	전혀 없다	27	(5.2)
	가끔 보인다	148	(28.6)
	반반이다	187	(36.1)
	악플이 더 많다	140	(27.0)
	전부 악플이다	11	(2.1)
	무응답	5	(1.0)
악플 경험	달아본 경험이 없다	324	(62.5)
	일년에 1번 정도	70	(13.5)
	2-3달에 1번 정도	45	(8.7)
	한달에 1번 정도	19	(3.7)
	한달에 2-3번	27	(5.2)
	일주일에 1-3번	22	(4.2)
	일주일에 4번 이상	11	(2.1)

설문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것을 악플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알기 위해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게 했다. 7개 답안에 대한 누적 응답자를 살펴보니 욕설을 담은 댓글에 490명이 응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에 416명, 쓴 사람의 의도적 악의가 담긴 댓글에 408명, 누가 봐도 명백한 비방, 비하가 담긴 댓글에 388명이, 허위 사실을 적은 댓글에 248명이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욕설을 담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의도적 악의가 있거나, 비방이나 비하가 담기거나, 허위 사실을 적은 댓글을 악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이용 중에 읽은 댓글의 내용 중 악플은 어느 정도를 차지했느냐는 질문에 반반이다에 36.1%(187명)가 답했고, 가끔 보인다에 28.6%(148명), 악플이 더 많다에 27.0%(140명)가 답해 응답자들은 악플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무응답자를 뺀 평균 2.92, 표준편차 .92).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62.5%(324명)가 달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악플 경험자는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을 일년에 1번 정도 단다에 13.5%(70명)가, 2~3달에 1번 정도 단다에 8.7%(45명)가, 한달에 2~3번 단다에 5.2%(27명)가 응답했다. 악플 경험자 중 일년에 1번 정도 단다를 “0”으로, 두세 달에 한번 단다를 “1”로 순서대로 모두 재코딩한 평균은 1.58, 표준편차는 1.61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들 중 악플 경험자는 평균적으로 두세 달에 1번 정도 악플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달에 몇 번 악플을 달아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없다에 82.2%(426명)가 답했고, 한달에 1번이

5.0%(26명), 2번이 4.1%(21명), 3번이 2.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자와 비경험자를 뺀 한달 악플 경험자 92명에 대한 평균은 9.08, 표준편차는 20.73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달에 악플을 몇 번 달아보았는가에 대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t-test 분석 결과 t값이 -.537이고 유의확률이 .593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비교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업성적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교차분석을 하여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성별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교차 분석으로 비교해 보니 악플 경험자는 남성이 53.1%(103명), 여성이 46.9%(91명)를 차지했다. 악플 비경험자의 경우 남성이 44.1%(143명) 여성이 55.9%(181명)를 차지해 백분율로 볼 때도 악플 경험자는 남성이 많았다. 성별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904$, $P<.05$). 구교태(2007)는 오

프라인상에서의 언어적 공격경험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자들의 플레밍 행위는 여자들의 악의적 언어공격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구교태의 연구 결과와 남성이 여성보다 악플 경험자가 많이 나온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연령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16.39세(표준편차 3.81)로 17세가 14.9%(77명), 16세가 14.7%(76명)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연령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악플 경험자의 경우 초등학생 10.3%(20명), 중학생 24.7%(48명), 고등학생 39.2%(76명), 대학생 25.8%(50명)로 고등학생에서 악플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 비경험자의 경우 초등학생 21.9%(71명), 중학생 16.0%(52명), 고등학생 29.9%(97명), 대학생 32.1%(104명)로 나타났다. 악플 비경험자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악플 경험자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784$, $P<.001$). 중학생의 경우 악플 경험자는 48명, 악플 비경험자는 52명으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고등학생 중 악플 경험자는 76명, 비 경험자는 97명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더 악플 경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이 입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악플을 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준비 등으로 중학생보다 여유시간

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플 경험자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악플 경험자가 많이 나온 것은 대학생의 경우 자유로운 대학생활로 입시 등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성별 518		연령 518				학업성적 512		
	남	여	초	중	고	대	하	중	상
악플 경험자	103	91	20	48	76	50	55	66	72
194(%)	(53.1)	(46.9)	(10.3)	(24.7)	(39.2)	(25.8)	(28.5)	(34.2)	(37.3)
악플 비경험자	143	181	71	52	97	104	63	125	131
324(%)	(44.1)	(55.9)	(21.9)	(16.0)	(29.9)	(32.1)	(19.7)	(39.2)	(41.1)
χ^2	3.904*		18.784***				5.224		

* p<.05 , *** P<.001

무응답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을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성적 하중상의 3점 척도로 하기 위해 성적 하위와 중하위를 하위="0"으로 중간을 중위="1"로 중상위와 상위를 상위="2"로 재코딩 하였다. 학업성적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했다. 조사 대상자 중 학업 성적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512명으로 악플 경험자의 경우 하위 28.5%(55명), 중위 43.2%(66명), 상위 37.3%(72명) 순으로 성적이 좋을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 비경

험자의 경우에도 하위 19.7%(63명), 중위 39.2%(125명), 하위 41.1%(131명) 순으로 나타나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 평균은 2.16으로 중간 이상의 성적을 보임을 알 수 있다(표준편차 .77).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224$).

2) 심리적 요인 비교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에 대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자아존중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악플 경험자	187	33.83	6.52	t=3.132 p=.002
악플 비경험자	323	35.67	6.31	
전체	510	35.00	6.45	

자아존중감의 경우 악플 경험자는 평균이 33.83(표준편차 6.52), 비경험자는 35.67(표준편차 6.31)로 평균을 비교해 볼 때 비경험자의 자아존중감이 경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악플 경

험자와 비경험자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t=3.132$, $P<.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악플 경험을 많이 하게 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경우,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자기 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악플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공격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악플 경험자	194	60.25	12.07	$t=-6.116$ $p=.000$
악플 비경험자	324	53.22	12.99	
전체	518	55.86	13.09	

공격성의 경우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악플 경험자의 공격성은 평균이 60.25(표준편차 12.07)이었고 악플 비경험자의 경우 평균이 53.22(표준편차 12.99)로 나타나 평균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116$, $P<.001$). 즉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 악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가정 환경적 요인 비교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월소득 등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해 보니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6>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부모 양육태도 비교

	부			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악플 경험자	193	66.09	8.62	194	70.33	9.46
악플 비경험자	321	65.58	10.57	324	70.09	9.06
전체	514	65.77	9.89	518	70.18	9.20
t		-.557			-.29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보면 악플 경험자의 경우 평균이 66.09(표준편차 8.62)이었고, 악플 비경험자의 경우 평균이 65.58(표준편차 10.57)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557$).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악플 경험자의 평균은 70.33(표준편차 9.46), 악플 비경험자의 평균은 70.09(표준편차 9.06)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2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악플 경험이 가정 내의 환경적인 영향 보다는 앞서의 결과처럼 심리적 요인인 개인적 특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7>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부모 의사소통 비교

	부			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악플 경험자	193	19.76	6.27	190	23.36	6.00
악플 비경험자	320	21.38	6.68	320	25.56	6.61
전체	513	20.77	6.57	510	24.74	6.47
t		2.717**			3.751***	

** $P<.01$, *** $P<.001$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 비교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경우 악플 경험자의 평균은 19.76(표준편차 6.27), 악플 비경험자의 평균은 21.38(표준편차 6.68)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717$, $P<.01$).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경우, 악플 경험자의 평균은 23.36(표준편차 6.00), 악플 비경험

자의 평균은 25.56(표준편차 6.61)으로 평균에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했다($t=3.751$, $P<.001$).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악플 경험 유무에 차이를 보였는데 악플 경험자는 악플 비경험자보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악플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월수입에 따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t-test를 해 본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조사대상자의 월수입은 무응답을 뺀 481명을 살펴보니 200~300만원 미만이 30.1%(145명)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이 23.3%(112명), 100~200만원 미만이 18.5%(89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은 평균이 2.7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1.32). 분석 결과, 월소득과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627$, $P=.531$).

<표 8>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월수입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악플 경험자	183	2.81	1.39	$t=-.627$ $p=.531$
악플 비경험자	298	2.73	1.27	
전체	481	2.77	1.32	

4. 악플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비교

악플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에 투입했다. <표 9>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악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비교한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유의미했다($\chi^2=61.347$, $P<.001$).

분석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투입된 뒤에도 예측에 가장 유용한 변인은 공격성이었으며($B=.042$, $P<.001$), 자아존중감도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41$). 각 요인들의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먼저 첫 번째 블록인 성별, 연령, 학업성적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모형의 예측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했다($\chi^2=4.707$). 두 번째로 투입된 심리적 요인의 자아존중감($B=-.045$, $P<.01$)과 공격성($B=.042$, $P<.001$)은 모형의 예측력을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chi^2=46.875$, $P<.001$).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을 투입한 결과, 블록의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9.764$). 하지만 어머니 의사소통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B=-.043$, $P<.01$), 어머니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모형은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요인별 영향력 비교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S.E	B	S.E	B	S.E
인구 사회적 요인	성별		-.347	.184	-.256	.192	-.139	.202
	연령		.044	.088	.006	.094	.033	.098
	학업성적		-.054	.082	.005	.089	.017	.091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045**	.014	-.041**	.014
	공격성				.042***	.008	.042***	.009
환경적 요인	양육 태도	부					.000	.010
		모					.006	.012
	의사 소통	부					.002	.018
		모					-.043**	.016
	월수입						.088	.069
χ^2 증가분			4.707		46.875***		9.764	
전 체			$\chi^2=61.347***$ 자유도=10					

* $p<.05$, ** $P<.01$, *** $P<.001$

독립변인들 중에는 심리적 요인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악플을 다는 행위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1. 결과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을 비교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가정 환경적 요인들이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가정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악플 경험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3.904$, $P<.05$). 이는 우리나라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이용이 많은 것과 악플 경험자가 많은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교태(2007)가 남성이 더 플래밍 행위를 많이 한다고 지적한 것과 이 연구 결과는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

생, 대학생으로 구분한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악플 경험자는 고등학생 연령(39.2%)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악플 비경험자는 중학생(16.0%)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악플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결과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784$, $P<.001$). 이 연구 결과는 구교태(2007)가 10대가 더 많은 플레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놀이문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플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블로그나 싸이월드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욕구를 해결할 출구가 없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쉽게 중독되는 것처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의 나쁜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악플을 다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학업성적은 성적이 높을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5.224$). 이들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악플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놀이 문화가 부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 공간에의 몰입은 나쁜 영향도 많이 받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심리적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했다($t=3.132$, $P<.01$). 공격성은 강할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했다($t=-6.116$, $P<.001$). Tuckle(1984)은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는 십대의 남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집안에서 인터넷만 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봉건(1999)은 낮은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존중감 회복은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게 되고, 실생활로 돌아오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진다고 했는데, 악플 경험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평소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게 되고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 하나 현실세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되지 않아 더 큰 상처를 입고 다시 악플을 달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또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도현심과 최미경(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구교태(2007)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격적인 언어 사용 형태인 플레밍이 언어적 공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플레밍보다 좁은 의미의 악성 댓글인 악플도 언어적 공격행위에 포함되므로 악플 경험자에게 공격성이 높게 나왔던 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가정 환경적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이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악플 경험자의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악플 경험 유무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악플을 다는 행위 자체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좌우되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조사됐다. 부모 중에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751$, $P<.001$). 한주라·허경호(2005)는 부모가 자녀에게 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및 대화지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들 선행 연구 결과는 악플을 다는 행위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경님(2004)은 아동의 게임중독 경향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간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지각할수록 게임중독의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게임중독의 경향은 낮다고 지적했다. 악플 경험자와 동일시해서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악플도 많이 달수록 중독적 성향을 지니므로 이 연구 결과에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즉 폐쇄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악플 경험자가 많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 월수입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627$, $P=.531$).

넷째,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공격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B=.042$, $P<.001$), 자아존중감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041$, $P<.01$). 영향력에서 가정 환경적 요인 모형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B=-.043$, $P<.01$). 이것은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비교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악플 경험과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반복연구를 통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호식·김금화(2004)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상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일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을 보일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의사소통은 서로 연관이 있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커지고 의사소통이 줄어들수록 공격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나야·한유진(2006)은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게임 시간을 줄이게 하는 인지행동적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건전하게 오락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게임 이외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공해 주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보인다. 선행 연구(고미영, 1998)에 의하면 아동기에 공격

적인 성향을 지닌 아동은 성장해서도 공격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인터넷 댓글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는데 기여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는 악플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여나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한계와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로 나누어 이들과 관련된 특성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악플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와 관련된 유의미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설문조사의 장점에서도 불구하고 응답 자료의 신뢰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다양한 연령에 걸쳐 조사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후속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 등 성인들을 포함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행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독자적인 척도를 개발하지 못하고 기존의 척도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정 환경적 요인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많아 대학생を対象으로 한 설문에서는 정확한 자료 분석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악플 경험자에 따른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척도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악플을 다는 요인을 보다 자세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설문조사와 더불어 악플을 중독적으로 다는 악플러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악플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자주 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은 (2001).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서울: 나남출판.
- 강양구 (2004). 인터넷신문 댓글의 문제점과 사별 대응책: ‘열린’ 인터넷을 위협하는 폭력 댓글,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166~169.
- 고미영 (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권, 51~75.
- 공경환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교태 (2007). 온라인 플래밍 발생 요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224~249.
- 김귀연 (2005). 아동의 위축,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권 6호, 247~266.
- 김병선 (2004). 웹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112~141.
- 김병철 (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14호, 147~180.
- 김성벽 (2002). 웹미디어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연구: 미디어생태학의 연구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천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후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연 (2001). 가정환경 변인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 선유화 (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3~64.
- 김재수 (200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PC통신 중독실태와 행동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5).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송종현 (2006). 어린이의 인터넷·컴퓨터게임 몰입에 미치는 자기통제성의 매개 역할과 어머니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2호, 116~260.
- 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권 2호, 19~33.
- 동아일보 (2005). 손 묶인 20대 ‘악플 폐인’ “세상 살맛이 안나...” 투신, 2005년 10월 29일자.
- 동아일보 (2007). “열등감, 너를 고발한다... ‘악플러의 심리학’”, 2007년 1월 29일자.
- 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 악플러에 속끓는 병·의원들, 소송도 "쉽지 않아", 2007년 9월 28일자.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2006). 1인미디어 댓글 작성자의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동의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 간 전이, 『한국아동학회지』, 23권 5호, 41~166.

박수경 (1992).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실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진 (2006). 댓글프로그램 수용자의 이용과 충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3권 4호, 113~142.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희·장남기 (1997). 자아 존중감이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실태 조사, 『환경교육』, 10권 2호, 63~74.

방상훈 (2006). 댓글의 방향성에 따른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사용 후기의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명성 (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화희 (198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양호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김금화 (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권 2호, 47~58.
- 안지영 (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K커뮤니케이션즈 (2007). 당신은 악플러인가?, 2007년 8월 17일 네이 트온 조사.
- 연합뉴스 (2006). 검찰, 인터넷 ‘악플’ 형사처벌 방침, 2006년 1월 23일자.
- 오경주 (1998). 소외아동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 행동 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 (2007). 악플의 심리학, 『신경정신의학회보』, 제47권 3호. 6.
- 이경남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권 1호, 77~91.
- 이경남 (2004).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 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권, 4호 99~118.
- 이봉건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통신, 인터넷 중독증의 증상과 예방. ‘사이버 공간의 심리: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하여’, 서울: 박영사.
- 이석재 (1996). 자기 제시 책략 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115~135.
- 이순형 (2002). 사이버공간과 실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불일치. 『대 한가정학회지』, 40권 4호, 통권 170호, 59~71.
- 이윤미·양혜영·이민아 (2006). 방문자의 자아 구성, 자아존중감, 성이

- 개인 웹사이트에 드러난 자기 제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6호, 254~286.
- 이희숙 (1980).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 김경원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권 3호,
283~295.
- 장 미 (2006).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
레스의 차이.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숙 (2006). 가족 변인 및 심리적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중학생 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권, 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302~327.
- 조남연 (1981). 학습우수아와 학업부진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동기·김병준·조희경 (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1~39.
- 조선일보 (2007). 인터넷의 흥기 ‘키보드 워리어’, 2007년 1월 23일자.
- 조희숙 (2004).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존
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한유진 (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
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4권 2호, 209~219.
- 최은영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호 (1993). 체면과 자아 존중감, 통제 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란 (2002).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06년 인터넷이슈심층조사.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1~1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6년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한규석 (1999). 사이버 공간 속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특성.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한주리·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202~227.
- 한혜경 (2001). 웹사이트 방문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517~552.
- 한혜경 (2003). 여론 지각 매체로서 인터넷에 관한 연구: 디지털조선과 오마이뉴스 독자 집단의 의사합의 지각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5~33.
- Bandur,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 Prentice - Hall.
- Baumeister, R. f. (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1), 3~26.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i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Positivity of Self-Views: Two

-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443~46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ubios, D. L., Bill, C. A., Sherman, M. D., & Roterts, M. (1998). Self-esteem and adjustmant in early adolescence :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557~583.
- Farrington, D. P.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Victims*, 4, 79~100.
- Fishbei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ussell.
- Giddens, Anthony, 권기돈 옮김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 Infante, D. A., & Wigley, C. j. (1986).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53, 61~69.
- kramarae, C., & Taylor, H. J. (1992). Electronic networks: Safe for women? The electronic salon: Feminism meets infotech. In 11th Annual Gender Studies Symposium. Available: <http://ftp.lclak.edu>
- Kremar, M (1996).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discourse behavior and child television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 251~277.
- Lesser, G. S. (1959).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orms of Aggression and Popularity among lower-class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50, 20~25.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Publishing Co.
- Pruijt, H. (2002). Social capital and the equalizing potential of the internet.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0(2), 109~1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A. M, & Bantz, C. R. 1987. "Utility of videocassette record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0, 417~485.
- Rubin, A. M, & Rubin, R. B. (1992). Anteceden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otivation. *Communication Quarterly*, 40, 305~317.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 (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XTV Meeting in Beijing.
- Wh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 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s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악플을 다는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질문에 빠짐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I. 댓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답하거나 V표해 주십시오.

1.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사용안함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2시간 미만
④ 2시간~3시간 미만 ⑤ 3시간~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2.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읽으십니까?

- ① 거의 읽지 않는다 ② 가끔 읽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읽는 편이다 ⑤ 매우 자주 읽는다

3.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3번 질문의 '② 있다'에 답한 분만 3-1, 3-2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3-1. 댓글을 주로 다는데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학교 PC실 ② 게임방(PC방) ③ 집(대방) ④ 집(거실) ⑤ 기타

3-2. 댓글을 주로 달게 되는 매체는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 ① 네이버 ② 다음 ③ 네이트 ④ 야후 ⑤ 중앙 일간지(조선/중앙/
동아일보,한겨레, 매일경제 등) ⑥ 주요방송사(KBS/MBC/SBS 등)
⑦ 독립 인터넷신문(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⑧ 토론게시판/블로

그 ⑨ 기타

4. 다음 중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V표해 주십시오.

- ① 누가 봐도 명백한 비방, 비하가 담긴 댓글 ② 쓴 사람의 의도적 악의가 담긴 댓글 ③ 보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 ④ 자신의 의견을 적은 댓글 ⑤ 눈물이 나게 하는 슬픈 댓글 ⑥ 허위 사실을 적은 댓글 ⑦ 욕설을 담은 댓글

5. 인터넷 사용 중에 읽은 댓글의 내용 중 **악플**은 어느 정도를 차지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보인다 ③ 반반이다
④ 악플이 더 많다 ⑤ 전부 악플이다

6.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단다면 몇 번 정도 다십니까?

- ① 달아본 경험이 없다 ② 일년에 1번 정도 단다
③ 2~3달에 1번 정도 단다 ④ 한달에 1번 정도 단다
⑤ 한달에 2~3번 단다 ⑥ 일주일에 1~3번 단다
⑦ 일주일에 4번 이상 단다

※ 6번 질문의 ‘① 달아본 경험이 없다’에 답한 분은 II문항으로 넘어가서 답해 주십시오. ②~⑦에 답한 분은 6-1 문항에도 답해 주십시오.

6-1. 최근 한달동안에는 몇 번의 악플을 달아봤습니까? _____번

Ⅱ. 아래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난에 V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Ⅲ. 각 문항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경우에 V표해 주십시오. “옳다”거나 “나쁘다”하는 것이 없으니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한다.					
3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겁주거나 괴롭힌다.					
5	내가 손해 보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꼭 복수해야만 속이 풀린다.					
6	이성(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을 보면 어쩐지 골려주고 싶어진다.					
7	나는 화가 났을 때 가끔 문을 “깡”하고 닫는다.					
8	나는 다른 사람들을 놀리거나 집적거린다					
9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10	나는 가끔 바보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놀려주고 싶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밀치거나 때린다					
12	나 또는 우리 가족을 깔보고 욕하는 사람과는 싸운다					
13	남을 헐뜯고 나무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신이 나서 듣는다					
14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책상을 ‘탕’하고 내리친 적이 있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한다					
16	나는 나를 궁지(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우겠다					
17	너무 뽐내는 사람들은 골려주고 싶다					
18	나는 화가 나면 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발로 차거나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					
19	나는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20	계속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은 얼굴을 때려주고 싶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남을 골려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22	나는 화가 나면 일부러 공책(책)을 찢거나 내던진 적이 있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신다.					
2	아버지는 나에게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다.					
3	아버지는 될 수 있으면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4	아버지는 내가 집밖에 나가 있으면 있는 곳을 알리라고 하신다.					
5	아버지는 화가 나면 내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6	아버지는 나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려고 하신다.					
7	아버지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8	아버지는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					
9	아버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10	아버지는 복장이나 용모를 단정히 하라고 말씀하신다.					
11	아버지는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					
12	아버지는 나를 지나치게 달라고 타협한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3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신다.					
14	아버지는 내가 일정한 귀가시간보다 늦으면 이유를 물어보신다.					
15	아버지는 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신다.					
16	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해 버릴 때가 많으시다.					
17	아버지는 내가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18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신다.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많으시다.					
20	아버지는 내가 밖에 나가 귀가시간이 늦어질 경우 집에 꼭 전화하라고 하신다.					
21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상관을 안 하시는 편이다.					
22	아버지는 아버지가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23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알고 계신다.					
24	아버지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신다.					

V. 다음은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신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어머니는 나에게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다.					
3	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4	어머니는 내가 집밖에 나가 있으면 있는 곳을 알려라고 하신다.					
5	어머니는 화가 나면 내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6	어머니는 나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려고 하신다.					
7	어머니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8	어머니는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					
9	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10	어머니는 복장이나 용모를 단정히 하라고 말씀하신다.					
11	어머니는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					
12	어머니는 나를 지나치게 달라고 타협한다.					
13	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신다.					
14	어머니는 내가 일정한 귀가시간보다 늦으면 이유를 물어보신다.					
15	어머니는 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신다.					
16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해 버릴 때가 많으시다.					
17	어머니는 내가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18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신다.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많으시다.					
20	어머니는 내가 밖에 나가 귀가시간이 늦어질 경우 집에 꼭 전화하라고 하신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상관을 안 하시는 편이다.					
22	어머니는 어머니가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23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알고 계신다.					
24	어머니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신다.					

VI.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1. 다음 문항들을 읽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느낀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의논한다.					
2	아버지는 항상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3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의논한다.					
4	나는 아버지께 애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다.					
5	아버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					
6	나는 아버지와 어떤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7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2. 다음 문항들을 읽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느낀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의논한다.					
2	어머니는 항상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3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의논한다.					
4	나는 어머니께 애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다.					
5	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					
6	나는 어머니와 어떤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7	나는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VII.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답하거나 V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만 _____세

3. 응답자의 학년을 적어주세요.

초등학교 _____학년, 고등학교 _____학년, 대학교 _____학년

4. 응답자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하위 ② 중하위 ③ 중간 ④ 중상위 ⑤ 상위

5. 응답자 가정의 총 월수입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100~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